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12. 8

주간 달러/원 동향(12/1~12/5)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BOI 금리인상 전망 반영한 엔화 강세가 약달러 견인한 영향으로 환율은 소폭 하락 출발. 이어 정부의 수급 안정화 정책 추진 의지에 따른 상단 경계감과 외국인들의 국내증시 대규모 순매수 등에 힘입어 추가 하락
- 중반, 트럼프가 해닛 NEC 위원장을 잠재적 연준 의장으로 언급하자 연준 비둘기 성향 강화될 것이란 관측 속에 달러 약세 나타났지만, 수급상 매수 우위 지속되며 소폭 하락에 그침
- 후반, 미 민간고용 부진 소식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 강화되자 하락 압력 받았으나,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 영향에 상승세로 전환. 이어 주 후반, 예상 밑돈 미 실업수당 청구건수에도 연준 금리인하 기대 유지된 데 따른 달러 약세 하락 전환하며 1,468.8원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67.0	1,475.1	1,468.7	1,468.8	+1.8

달러/원 전망

- 금주 달러/원 환율은 12월 FOMC 관망세 속 상승 압력 받을 것으로 전망
- 12월 FOMC를 앞두고 발표된 미 9월 PCE물가지수가 예상에 부합하면서 연준 금리인하 전망 지지된 점은 달러 약세에 영향 미칠 것으로 판단. 다만, 미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연준 내부 의견 분열 및 매파적 스탠스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에 달러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여기에, 당국 경계감에 따른 시장의 상단 인식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 결제 및 해외투자 환전 등의 달러 매수세 유입되며 수급 불균형 지속될 경우 환율 상승 압력이 우위 보일 것으로 예상

예상거래범위

1,460원 ~ 1,480원

유로·엔화 동향 (12/1~12/5)



유로화 동향

- 주초, 미 제조업 PMI가 예상과 달리 위축세를 보이자 연준 12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강화된 반면, 라가르드 ECB 총재의 호키시한 발언에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 출발. 이어, 유로존 11월 CPI가 반등하며 ECB 금리동결 전망을 지지한 가운데 OECD의 유로존 성장을 상향 조정 소식에 힘입어 추가 강세
- 중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 논의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였음에도 유로존 11월 서비스업 PMI 개선 등 양호한 경제 데이터에 강세 흐름 지속
- 후반, 유로존 소매판매 데이터가 컨센서스를 하회한 가운데 미 실업지표 개선 소식에 달러인덱스가 반등하자 약세로 전환. 이어 주 후반, 예상을 웃돈 유로존 3분기 GDP에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ECB 관계자의 발언에 약보합세를 보이며 1.16달러대에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601	1.1682	1.1590	1.1644	+0.0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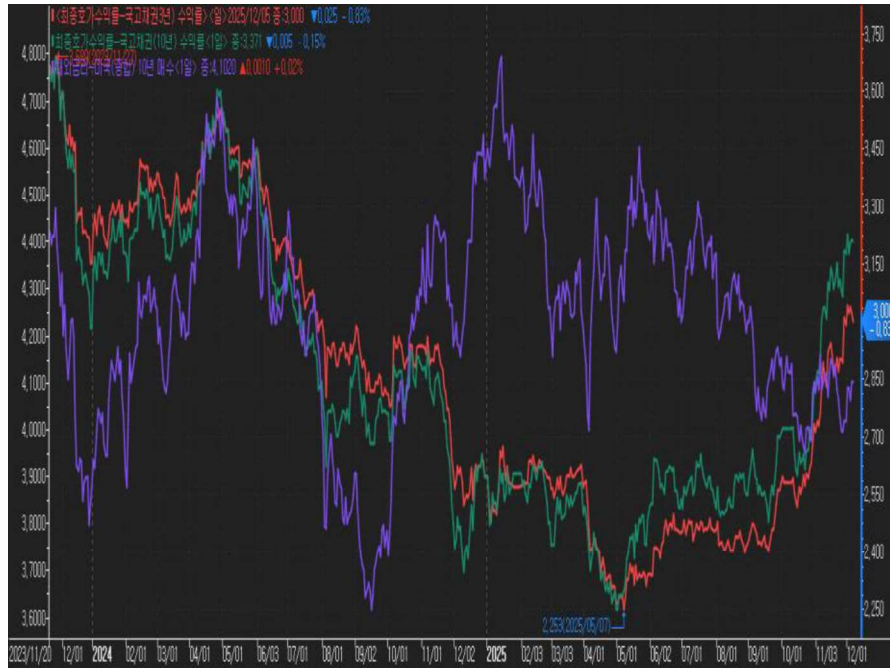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우에다 BOJ 총재의 매파적 발언에 12월 금정위에서 금리인상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급부상하자 엔화가 장중 154엔대로 하락하는 등 큰 폭의 강세 보이며 출발. 이어 BOJ 긴축 재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정부의 통화완화 기조 아래 추가 인상 속도는 여전히 더딜 것이란 시장 인식을 반영, 강세 폭을 일부 되돌림
- 중반, 미 11월 민간고용이 컨센서스와 달리 부진한 양상을 보인 가운데 연준 금리인하 기대 강화되며 미 국채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엔화 가치 반등
- 후반, 12월 금정위에서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일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에 힘입어 강세 흐름 이어짐. 이어 주 후반, 예상에 부합한 미 PCE물가지수에 달러 약세 나타났으나 일본과 중국과의 외교 마찰 영향 등에 약세 전환 후 155엔선에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6.1	156.2	154.3	155.3	-0.8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중시 동향 (12/1~12/05)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초반, 일본 국채금리가 BOJ 금리인상 가능성에 튀어 오름에 따라 글로벌 금리 상승 속에 국고채 금리도 동반 상승 출발. 이어 교환율 여파와 일본 국채 금리 급등 양상 지속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순매수가 뒷받침된 영향 등으로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미 연준 차기 의장으로 케빈 해셋 위원장이 유력하다는 분위기에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며 국고채 금리도 동반 영향 반영되었으나, 국내 3분기 GDP 상향 조정 소식과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전환에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국고채 금리가 일본과 호주 금리 상승 후, 그 폭을 줄임에 따른 영향 반영하며 소폭 하락 추세 전환 후, 주 후반, 미 주간 실업보험 건수가 시장 예상과 달리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에 미 국채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국고채 금리는 외환시장 안정세 등을 반영하며 급등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소폭 하락하며 한 주간 마감



주간 중시 동향

- 초반, 뉴욕 증시의 블랙프라이데이 관련 소비 호조 영향과 국내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야간 합의 등의 정책 기대감에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BOJ 총재의 금리인상 가능성 언급 속 닛케이 지수 급락에 투자심리 위축되며 하락 반전. 이어 뉴욕금융시장의 기술주 호조 속 미국내 국내 자동차 판매 11월 소급 15% 인하 소식 등으로 코스피 4,000선 근접 양상 시현
- 중반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케빈 해셋 위원장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소개 등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 지속
- 후반 들어, 미 ADP 고용 부진 소식에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금융시장 3대 지수가 상승했지만, AI 수요 부족과 수익성 우려 등에 따른 국내 반도체주 중심에 외국인 매물 출회 등으로 하락 전환. 주 후반, 미 고용시장 실업보험 수요 감소가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을 약화시킴에 따라 투자심리가 다소 약화했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영향 등으로 코스피는 4,100선 회복 양상 나타내며 마감